

농어촌公 경북본부, 'K-청렴 서포터즈' 발대식 개최

(아시아뉴스통신= 윤석원기자)

송고일시 : 2025-08-11 13:13



지난 8일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에서 열린 'K-청렴 서포터즈' 발대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(사진제공=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)

[아시아뉴스통신=윤석원 기자]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(본부장 서선희)는 지난 8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대구·경북지역 대학생(MZ세대) 10명으로 구성된 'K-청렴 서포터즈' 발대식을 개최했다.

'K-청렴 서포터즈'는 청렴한 조직문화 구축과 확산을 위해, 대학생(MZ세대)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사 운영에 반영해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로, 대학생들에게는 공익 활동 참여 기회를 부여해 미래 인재 육성 지원 및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이행하고자 하는 취지로 선발됐다.

이번 서포터즈로 임명된 대학생들은 공공기관 청렴정책 및 과제 발굴을 위한 토론, 청렴 관련 캠페인 기획, 콘텐츠 제작 등의 활동을 통해 미래 세대 관점의 청년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확산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.

또한 서포터즈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일반 국민들도 'K-청렴 서포터즈' SNS 계정의 팔로워, 좋아요 등을 통해 클릭 수만큼 기부금을 누적해 연말 사회취약계층에 기부하는 '청렴기부금' 전달에 동참할 수 있으며, 이는 청렴 문화 확산과 지역사회 공헌을 연계한 경북본부의 기획 아이템이다.

이 외에도 농어촌공사 경북본부는 반부패 의식을 전파하고, 지사별 청렴도를 점검하기 위한 자체 교육 컨설팅 프로그램인 '청렴돌봄센터'를 운영하며,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'청렴사원증'을 제작하는 등 다양한 캠페인을 추진하며, 윤리 경영을 선도하는 공사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.

서선희 농어촌공사 경북본부장은 "투명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K-청렴 서포터즈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"이라며 "K-청렴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농어촌 공사가 더욱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젊은 청년들의 적극 참여를 부탁한다"고 말했다.

seok193@daum.net